

# ICT산업 2019년 1분기 동향

I. 반도체  
II. 디스플레이  
III. 휴대폰

## 작성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 <요 약>

**(반도체) 1분기 세계 메모리반도체산업은 계절적 비수기와 재고조정 등으로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장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약 30% 축소됨**

- (세계시장) 1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29.2% 감소한 163.3억 달러,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1.4% 감소한 107.9억 달러를 기록
- (가격) 2분기에도 재고소진을 위한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어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수출) 1분기 반도체 수출은 반도체 가격하락, 수요둔화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21.5% 감소한 235.4억 달러를 기록

**(디스플레이) 1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은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1% 축소**

- (세계시장) LCD 패널 시장은 가격 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축소, OLED는 스마트폰용 패널 출하량 감소,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
- (가격)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로 중국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우리기업의 주력인 60인치 이상 패널 가격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
- (수출) 1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7.3% 감소한 52.6억 달러를 기록

**(휴대폰)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10.8백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6.6% 감소하여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세계시장) 미국,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 화웨이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하면서 상위 3개 기업중 유일하게 성장
- (기업) 미중무역분쟁, 미국의 화웨이와 거래제한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애플, 화웨이의 판매량 감소로 2019년에도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할 전망
- (수출) 1분기 휴대폰 수출은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27.3% 감소한 27.1억 달러를 기록



## I. 반도체

**(세계시장) 1분기 세계 메모리반도체산업은 계절적 비수기와 재고조정 등으로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장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약 30% 축소됨**

- 1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29.2% 감소한 163.3억 달러,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1.4% 감소한 107.9억 달러를 기록
- 모바일 수요(D램 수요의 40%)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서버용 수요(D램 수요의 30%)는 회복되지 못하여 D램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34%, 낸드플래시 가격은 24% 하락
- 인텔 CPU 공급부족이 지속되면서 PC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약 5% 감소하는 등 수요약세 지속

< 세계 D램 시장규모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DRAMeXchange

<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규모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DRAMeXchange

**(가격) 2분기에도 재고소진을 위해 메모리반도체 가격인하가 지속되어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주요 반도체 기업의 1분기 재고자산은 전분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반도체 기업은 재고 소진을 위해 2분기 메모리반도체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

\* 반도체 재고자산: 삼성전자 14.6조원(전분기 대비 14% 증가), SK하이닉스 5.1조원(1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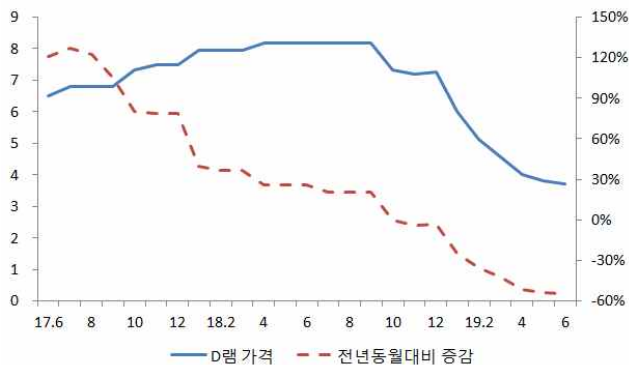
\* 1분기 D램 재고: 반도체 회사 6주분, 수요기업 5주분 (서버 수요기업: 7주분 이상)



- 미중무역분쟁 장기화,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으로 인해 IT기기의 수요가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가격 상승을 제약
-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25%) 대상에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을 포함하여 미국내 IT기기 판매가격 인상 및 판매량 둔화, 중국 경제 위축이 예상됨
- 추가관세 대상은 6월 17일 공청회 이후 확정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이미 3차례 추가관세를 부과했으며 4차 추가관세 대상 확정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 대부분에 관세가 부과되어 중국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sup>1)</sup>
- 화웨이는 스마트폰 세계 2위('19.1분기), 통신장비 세계 1위('18), 서버 세계 5위('18.3분기) 기업으로 미국기업과 거래제한 조치로 부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어려워 IT기기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D램 가격 >

단위: 달러



< 낸드플래시 가격 >

단위: 달러



주 : D램은 DDR(Double Data Rate)4 8Gb 1Gx8 2133MHz(PC용),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 (메모리카드/USB형 범용) 고정거래 가격 기준, 2019년 5월부터는 전망

자료 : DRAM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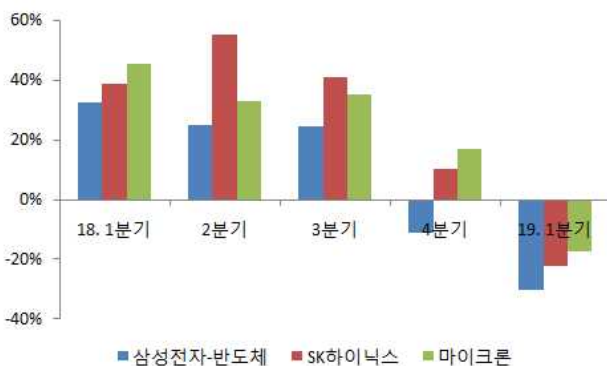
1)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3차례 부과(1차-'18.7, 340억 달러(중국제조 2025 관련 818개 품목), 2차-'18.8, 160억 달러(279개 품목), 3차-'18.9, 2,000억 달러(5,745개 품목)). 4차 관세부과대상은 3,000억 달러 규모로 IT기기, 소비재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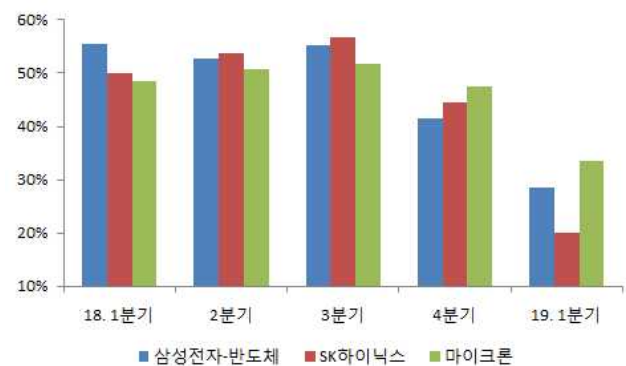
## (기업) 1분기 주요 기업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평균 20% 이상 하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2018년 40% 이상에서 2019년 1분기 20~30% 수준으로 하락

- 삼성전자의 매출은 2018년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했으며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매출도 2019년 1분기에는 역성장
- 마이크론의 1분기 회계기간은 2018년 12월~2019년 1월로 상이하여 한국기업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을 기록
- 낸드플래시 가격이 Cash cost<sup>2)</sup>에 접근하면서 삼성전자 외 다수 기업은 낸드플래시 사업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이익률 하락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영업이익률은 가격하락에도 44% 이상을 유지

<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



<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 >



자료 : 블룸버그, 전자공시시스템

## (수출) 1분기 반도체 수출은 반도체 가격하락, 수요둔화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21.5% 감소한 235.4억 달러를 기록

-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6.2%,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5% 감소하면서 1분기 수출증가율은 10분기만에 역성장

\* 반도체 수출증가율(%): ('18.1분기)46.1→(2분기)39.2→(3분기)29.1→(4분기)7.4→('19.1분기)△21.5

-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홍콩 포함) 수출(비중 61%)은 전년동기 대비 30%, 2위 수출 대상국인 베트남 수출은 3.6% 감소했으나 미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

2) Cash cost는 현금주의 비용으로 현금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를 제외



- 1분기 반도체 수출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1.1% 감소했으나 월별로 살펴보면 물량은 개선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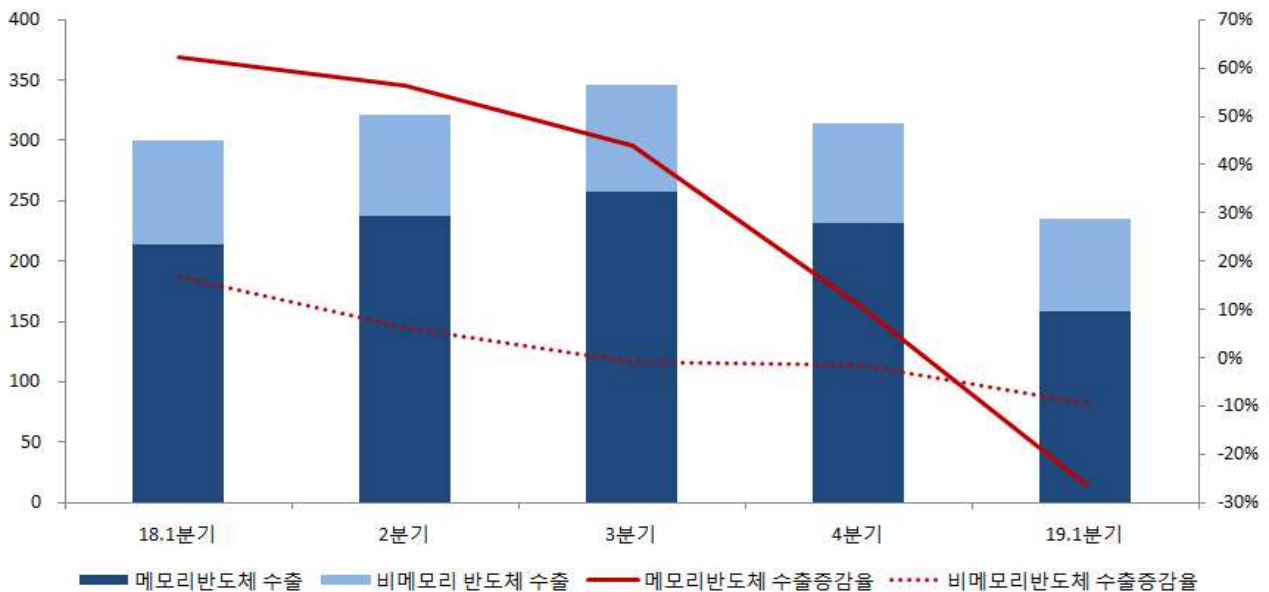
\* 반도체 수출물량(전년동월 대비, %): ('18.12)△5.3→('19.1)△3.8→(2)△2.7→(3)3.4

- 1분기 반도체 수출단가는 전년동기 대비 20.5% 하락했으나 월별 가격 하락폭은 축소

\* 반도체 수출단가(전년동월 대비, %): ('18.12)△3.3→('19.1)△20.4→(2)△22.7→(3)△19.4

### < 반도체 수출액 >

단위: 억 달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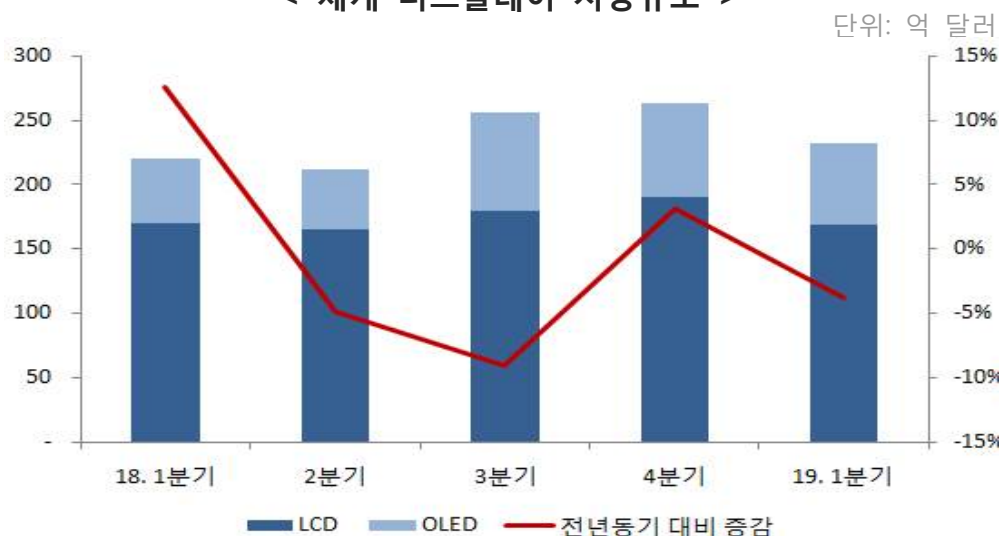


## II. 디스플레이

### (세계시장) 1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은 수요둔화,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1% 축소

- (LCD) 대형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LCD 가격 하락으로 LCD 패널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0% 축소
  - 대형 LCD 패널 출하량은 TV 외 수요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0.1%, 중소형은 스마트폰의 OLED 탑재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
  - LCD 패널 가격은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로 2018년 상반기에 하락, 3분기에 일시 안정화되었다가 4분기에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가격 하락세 지속
- \* LCD TV 패널가격(55인치 UHD, 달러): ('18.1)176→('12)147→('19.1)143→(2)139→(3)140
- (OLED) OLED 시장규모는 주 수요처인 스마트폰용 패널의 출하량 감소,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
  - 1분기 스마트폰용 OLED 시장은 출하량 감소(△4.1%)와 가격 하락(△5%)으로 전년동기 대비 9% 축소, TV와 스마트워치용 패널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27%, 137% 성장하여 수요처 다변화 지속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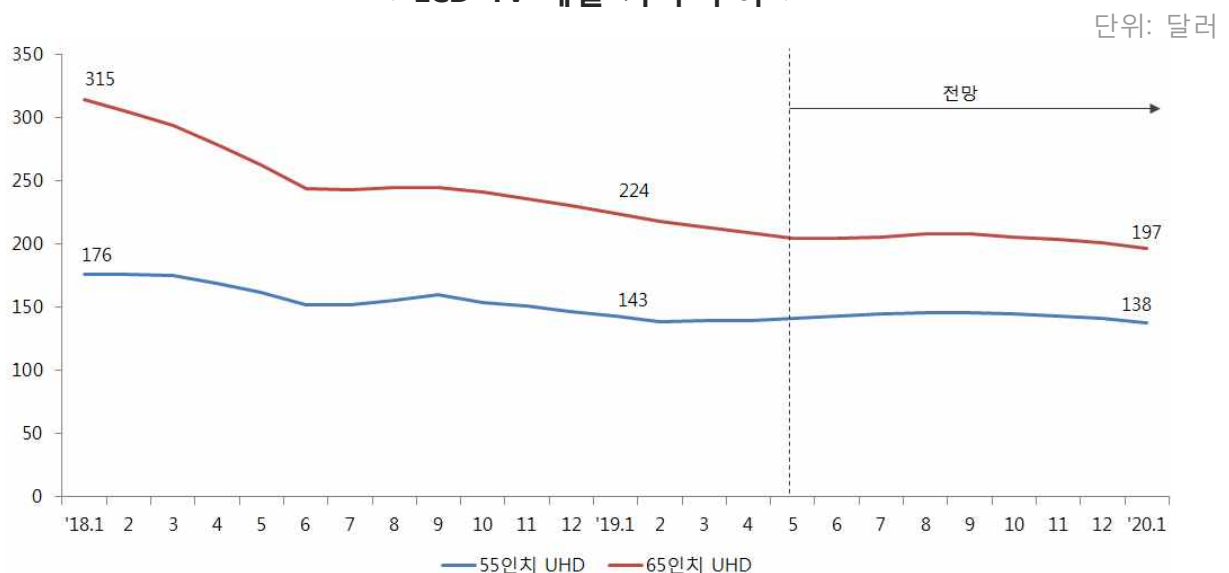




## (가격)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로 중국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우리기업의 주력인 60인치 이상 패널 가격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

- 중국의 60인치 이상 대형 LCD TV 패널 점유율은 2018년 1분기 3.6%에서 2019년 1분기 33.9%로 상승했으나 한국의 점유율은 54.8%에서 45.1%로 하락
- 중국기업은 65인치, 75인치 대형 패널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10.5세대 LCD 공장을 보유했으나 국내기업은 8세대 생산라인을 보유하여 효율성 경쟁에서 불리
- 2018년 BOE의 10.5세대 LCD 가동에 이어 2019년 1분기 China Star의 10.5세대 양산 등의 효과로 우리기업의 주력인 60인치 이상 패널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
- 55인치 UHD 패널 가격은 2019년 1분기 평균 140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0% 하락, 65인치 UHD 패널 가격은 219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8% 하락
- 단기적으로 LCD 가격은 1분기에 Cash cost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어 2분기에는 가격이 안정화되고 3분기에는 수요 증가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LCD TV 패널 가격 추이 >



주 : 2019년 5월 이후는 전망  
자료 :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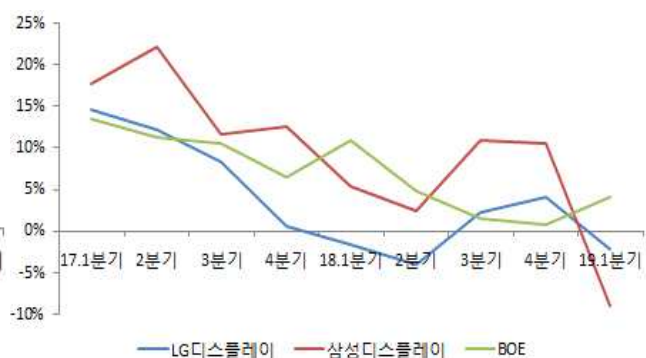
## (기업)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로 한국기업은 LCD 공급과잉, 중소형 OLED 수요 둔화,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중국기업 대비 낮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기록

- (LG디스플레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 증가한 5.9조원을 기록했으나 매출의 80%를 담당하는 LCD 가격 하락으로 영업이익은 3분기만에 영업손실(-1,320억원)로 전환
- 2분기 이후 실적은 중소형 OLED 수출, 아이폰 패널 공급량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
- (삼성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OLED 수요 둔화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 2016년 1분기 이후 3년만에 분기 영업손실 발생
- 플렉서블 OLED는 아이폰 부진, 리지드 OLED는 LCD와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1분기 영업손실 5,600억원이 발생, 삼성전자에서 분할된 2012년 이후 최대 분기 영업손실을 기록
- 2분기에는 갤럭시S10 및 갤럭시 폴드 출시 효과 등으로 성장성 개선 예상
- (BOE)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 영업이익률도 4%로 한국기업대비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달성
- LCD 가격하락 등의 여파로 영업이익은 47% 감소했으나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유지

<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



<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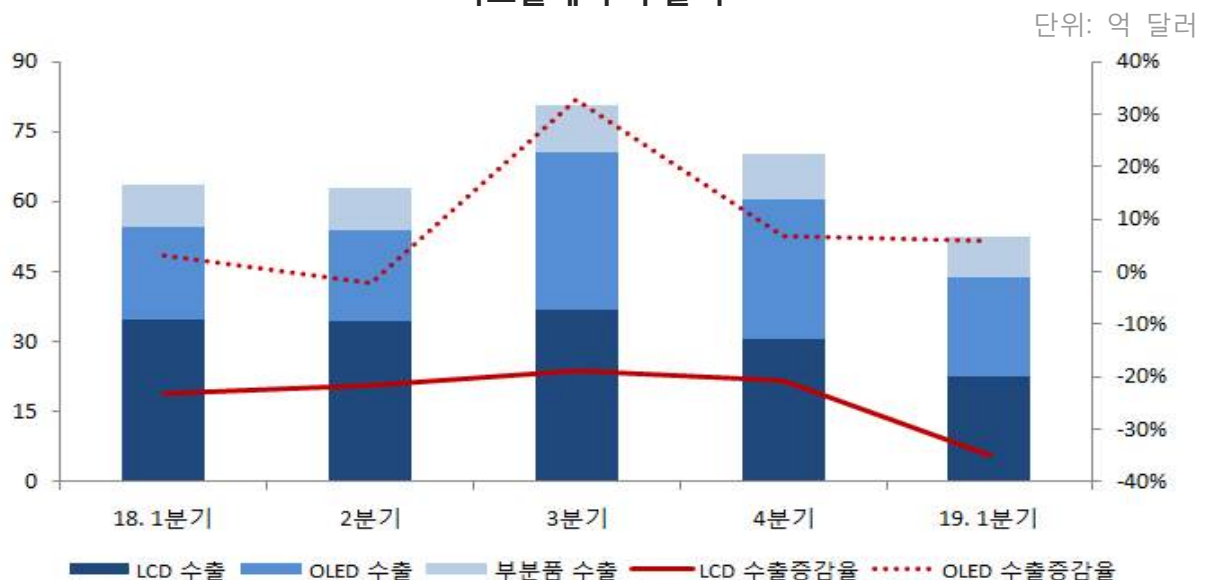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 (수출) 1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7.3% 감소한 52.6억 달러를 기록

- LCD 수출은 중국의 생산 확대, OLED의 시장잠식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34.9% 감소, OLED 수출은 TV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
-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5.8%, 2위 수출대상국인 베트남 수출은 5.3% 감소했으나 3위 멕시코 수출<sup>3)</sup>은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
- 대중국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1.3% 감소, OLED 수출은 1.6% 증가
- 1분기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은 LCD와 OLED 물량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
- LCD 수출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3.5%, OLED 수출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10.9% 증가
- \* LCD 수출물량(전년동기 대비, %): ('18.3분기)0.2→(4분기)3.6→('19.1분기)3.5
- \* OLED 수출물량(전년동기 대비, %): ('18.3분기)△3.3→(4분기)7.8→('19.1분기)10.9
- 1분기 디스플레이 수출단가는 LCD와 OLED 가격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15.3% 하락
- LCD 수출단가는 23.2%, OLED 수출 단가는 6.1% 하락
- \* LCD 수출단가(전년동기 대비, %): ('18.3분기)△20.3→(4분기)△18.8→('19.1분기)△23.2
- \* OLED 수출단가(전년동기 대비, %): ('18.3분기)36.6→(4분기)△1.5→('19.1분기)△6.1

< 디스플레이 수출액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에서 TV를 생산하여 북미에 수출



### Ⅲ. 휴대폰

**(세계시장)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10.8백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6.6% 감소하여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
  - 스마트폰 가격 상승, 신모델 대기 수요 등으로 인해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5%, 6% 감소,
  - 세계시장의 10%를 점유하는 인도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7% 증가하며 성장세 지속<sup>4)</sup>
- 화웨이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하면서 상위 3개 기업중 유일하게 성장한 반면 애플의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30% 하락
  - 삼성전자는 1위를 수성하고 있으나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8% 하락, 3월 출시한 갤럭시S10의 판매호조 등으로 2분기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화웨이는 중국(전년동기 대비 33% 증가), 유럽(69%) 등을 기반으로 2위를 차지, 애플은 아이폰 가격부담<sup>5)</sup>, 미중무역분쟁 등으로 중국 등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하락

\* 애플의 중국시장 점유율 : ('18.1분기)11.9% →('19.1분기)6.7% (Strategy Analytics)

<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



자료 : IDC

4) 인도는 휴대폰 출하량중 피쳐폰이 약 50%를 차지하여 성장잠재력 보유

5) 아이폰XR(749달러), 아이폰XS(999달러), 맥스(1,099달러)

## (기업) 미중무역분쟁, 미국의 화웨이와 거래제한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애플, 화웨이의 판매량 감소로 2019년에도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할 전망

-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25%) 대상에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아이폰의 미국 판매가격 인상, 중국의 미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미국, 중국의 판매량 둔화 예상
  - 아이폰의 생산거점은 중국이며 관세부과로 아이폰XS의 판매가격이 160달러 인상 (999달러→1,159달러, 모건스탠리)될 것으로 예상
  - 중국에서 미국 제품 불매 운동 발생시 위축된 중국 점유율이 추가 하락할 전망
- 화웨이는 미국의 거래제한 조치에 따라 구글, 퀄컴 등과 거래가 중단되어 부품 조달과 서비스(OS, 유튜브 등) 제공이 어려워 출하량이 전년대비 최대 24% 감소할 전망
  - 화웨이의 해외매출 비중은 51%이며 구글의 안드로이드, 유튜브 등의 사용이 어려워 해외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 판매량이 감소할 전망
    - \* 화웨이의 지역별 출하량 비중('18): 아시아 61%, 유럽 22% (Strategy Analytics)
  - 미국의 제재에 영국, 일본, 대만 통신사가 화웨이 신모델 출시 연기 또는 중단을 발표<sup>6)</sup>
-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미국, 유럽은 한국기업, 중국은 비보, 오포 등 중국기업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에도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 지역별 스마트폰 점유율 >

미국		유럽		중국	
기업	점유율	기업	점유율	기업	점유율
애플	43.8%	삼성전자	32%	화웨이	33.7%
삼성전자	23.8%	화웨이	25%	비보	20.0%
LG전자	12.4%	애플	17%	오포	19.5%
모토로라	4.7%	기타	26%	샤오미	11.9%
알카텔	4.6%			애플	6.7%
ZTE	3.5%			삼성전자	1.1%
기타	7.2%			기타	7.1%
합계	100%		100%		100%

주 : 미국은 2018년 기준, 유럽과 중국은 2019년 1분기 기준  
 자료 : IDC,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Strategy Analytics

6) 영국 통신사 EE의 화웨이의 5G 스마트폰 Mate 20X 출시 연기, 일본 통신사 KDDI의 화웨이 신모델 출시 연기, 대만 통신사(중화텔레콤, 타이완모바일, 파이스톤 등)의 화웨이 신모델 판매 중단 등



## (수출) 1분기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7.3% 감소한 27.1억 달러를 기록

- 완제품 수출은 신모델 출시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하락폭은 △7.2%로 둔화, 부분품 수출은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38.9% 하락

\* 완제품 수출증가율(%): ('18.1분기)△17.8→(3분기)△9.9→(4분기)△26.0→('19.1분기) △7.2%

-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베트남, 중국(홍콩 포함) 수출이 모두 전년동기 대비 감소

- 미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2%, 한국기업의 생산거점인 베트남 수출은 16.3%, 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8% 감소

- 삼성전자는 해외생산기지를 베트남, 인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중국 텐진공장 가동 중단('18.12),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 감산을 추진하는 점도 중국 수출 둔화 요인

- 1분기 휴대폰 수출물량은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8.5% 감소

- 완제품 수출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부분품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17.5% 감소

\* 완제품 수출물량(전년동기 대비, %): ('18.3분기)△8.1→(4분기)△41.1→('19.1분기)△24.0

\* 부분품 수출물량(전년동기 대비, %): ('18.3분기)△11.0→(4분기)△1.1→('19.1분기)△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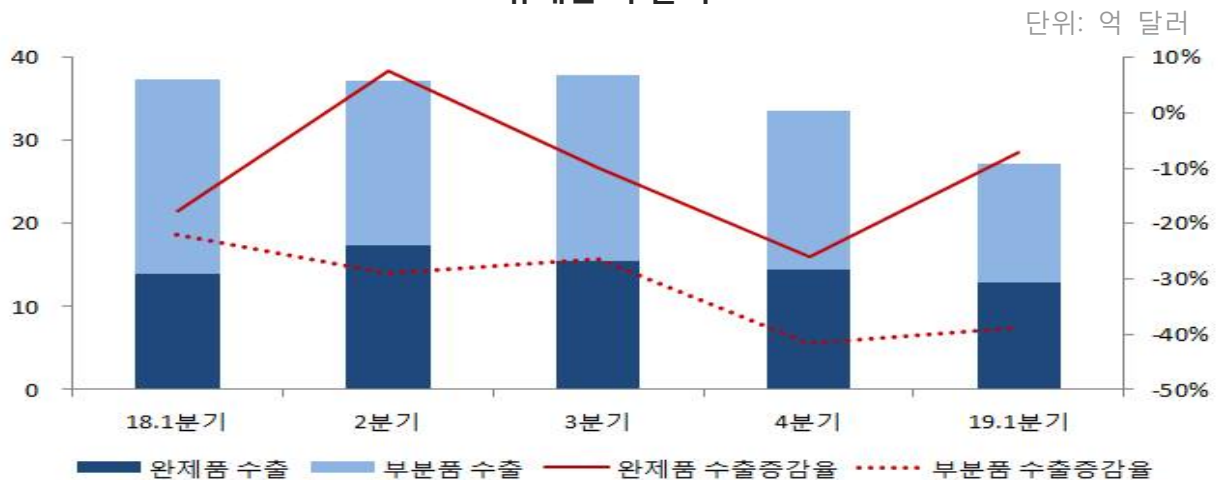
- 1분기 휴대폰 수출단가는 부분품 수출 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9.9% 하락

- 완제품 수출단가는 22.1% 상승, 부분품 수출단가는 25% 하락

\* 완제품 수출단가(전년동기 대비, %): ('18.3분기)△1.0→(4분기)24.9→('19.1분기)22.1

\* 부분품 수출단가(전년동기 대비, %): ('18.3분기)△15.8→(4분기)△40.3→('19.1분기)△25.1

< 휴대폰 수출액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